■일 자: 2005. 6. 2 ~ 7. 31
■장 소: 동숭아트센터소극장
■시 간: 화 - 금8시
■관람료:“ 토4시,7시/일,공휴일3시,6시 ”
화~금2만원 “ 토,일,공휴일3만원"
• 한국감정평가협회회원20% DC (회원본인만)
• 기획사전화예매시만가능
■문 의: 악어컴퍼니02)764 - 8760
www.goart.co.kr
■캐스트: 화목토팀:“ 정경순, 심혜진, 박호영 ”
수금일팀:“ 김성령, 조혜련, 진 경 ”

Cool한 여우들의 톡!쏘는 수다

정보석, 권해효, 정원중 등 이름난 배우들을 쓰며 남성들의 속물근성을 유쾌하게 풀어낸 연극 '아트'가 심혜진, 조혜련, 정경순, 김성령 등 출연진을 여자로 바꿔 '6월의 아트'로 대학로 무대에 올려진다. 심혜진과 조혜련은 이 연극에서 지방 공대교수 관주 역에, 정경순과 김성령은 문방구 사장 경숙 역에 더블캐스팅됐다. 심혜진은 냉정하고 세련된 타입이라면 조혜련은 강력하고 저돌적인 타입, 정경순이 덜렁대는 푼수타입이라면 김성령은 귀여운 수다쟁이 타입으로 각각의 배우에 맞춰 배역의 성격이 유동적인 점이 이 연극의 특징이다.

“ 이세상은여자를몰라도너무모른다! 그네들의속사정을거침없이대변할여자!‘ 6월의아트 ’ ”

“ 이번 연극의 내용은 남자 ‘ 아트' 거의 그대로다. 공대 교수 관주가, 아무리 뜯어봐도 빈 캔버스일 뿐인 해괴한 그림을 1억8000만원이나 주고 산 친구 수연과 대판 싸움을 벌이며 출발하는 이야기이다. 결혼을 보름 앞둔 또 다른 친구 경숙이 둘을 말리다 싸움판이 커진다. 철학원 상담, 시댁식구와의 자잘한 마찰 등 30대 중반 여성들이 겪을 법한 풍경이 새로 담겼다."

신나는 록큰롤 향연 스트레스 확“뮤지컬 그리스”

‘ 그리스 는 1950년대 미국의 새로운 자유를 표방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패션으로“ 머리에 바르던 포마드 기름 ’을 의미한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영화로 중장년층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뮤지컬 ‘ 그리스 가 2003년 17만 관객 흥행몰이의 기록을 세운 초연 이후(오디컴퍼니) 1년여 만에 다시 올려진다. 영화가 발표된 당시부터 거부감 없이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뮤지컬 전반에 흐르는 Rock&Roll 흥겨운 리듬과 경쾌한 멜로디의 공이 클 것이다. CF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Summer night과 You are the one that I want 등 영화 ‘ 그리스 의 OST 앨범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게 한 인기 뮤지컬 넘버들을 무리없이 소화해 내는 배우들의 가창력은 25명의 젊은 배우들이 내뿜는 열기와 더불어 관객의 흥겨움을 돋군다 .“ 바람둥이 대니와 정반대의 청순한 소녀 샌디의 순수한 로맨스를 주축으로하는 스토리는 어깨에 힘을 준 가죽점퍼와 청바지, 머리를 한결같이 반질거리게 붙이고 다니는 남학생들과 조신한 여학생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꿈에 부푼 여학생들의 사랑과 고민에 대한 청춘 보고서이다.”

“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청소년시절의 사랑, 우정, 꿈에 관한 이야기 ”젊은 층에게는 정서적 공감과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중장년 층에게는 잃어버린 아름다운 기억들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

■일시: 2005년4월 22일(금)
2005년6월 26일(일)
2005년5월 23일~ 8월7일
화 - 금7:30 pm, 토4:00, 7:30 pm,
일5:00 pm (월공연없음)
■ 장소: 충무아트홀대극장
■ 제작: ㈜오디뮤지컬컴퍼니
■ 티켓가격: R석6만원/ S석5만원/ A석4만원
(한국감정평가협회회원10% DC 동반1인포함)
- 기획사전화예매시만가능
㈜오디뮤지컬컴퍼니02)556 - 8556
www.musicalgrease.com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푸른숲

<봉순이 언니> 이후 7년, 공지영의 신작 장편소설이 출간됐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생명'이란 살아 있으라는 명령"이며, "때론 살아서 이 생을 견디는 것이 죽음보다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목숨이라도 분명 유지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 책은 세상에게 버림받아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범죄 발생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탐구, 그리고 작죄와 구원에 관한 철학적 · 종교적 사유가 결합되어 소설은 묵직한 울림을 울린다. 그러나 동시에 작가 특유의 감성적인 필치는, 특히 작품 말미에서 독자의 눈물샘을 사뭇 자극한다. 작가는 "석 달 동안 폭풍처럼 썼다"고 했다. 그래서인가. 소설은 폭풍처럼 읽힌다. 누가 옆에서 말을 걸더라도 눈 떼기 어렵고, 지하철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더라도 쏟아 내리는 눈물 감추기 버겁다. 한달음에 다 읽어버린 지금 마법 같은 흡인력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젊은 날의 깨달음

고종석 외 8인/인물과 사상사

조정래, 박노자, 홍세화, 박홍규, 김진애, 고종석, 손석춘, 정혜신, 장회익, 9인이세상과 인생과 일을 새롭게 발견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적인 발언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이들의 사상, 그 뒤편에 숨겨져 있던 인생의 궤적을 진솔하게 담아낸 책이다. 젊음은 아름답다. 성장을 위한 진통이 극심할수록 젊음은 의미를 더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청춘예찬'을 되뇌는 것도 그 시절의 '푸르름'을 알기 때문이다. <젊은 날의 깨달음>은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이 삶의 진정성을 고민했던 젊은 날의 초상을 잔잔하지만 생생하게 풀어놓은 책이다.

영어회화 핵심패턴 233

백선엽/길벗이지톡

41개 패턴줄기로 233개 핵심패턴을 익혀서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 미국 TV나 일상회화에서 600개를 추리고, 저자의 미국친구 7명이 300개로, 다시 233개로 가리고 가려뽑은 '진짜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다
기본 패턴 줄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핵심패턴이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소개한다. Step 1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회화 문장에서 단어만 갈아 끼워 익힐 수 있도록 했고, Step 2에서는 가장 미국적인 회화문으로 현지의 생생한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Tip에서는 회화문에 묻히기에는 아까운 쏠쏠한 여러 회화 표현들을 일러주고, 대화 내용과 관련된 미국 최신 문화 정보나 잘못 쓰이고 있는 영어를 바로잡아준다.